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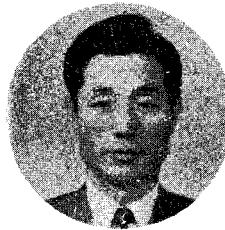
企業經營과 稅金講話 5

企業經營의 合理와 効能을 為해 알
기 쉽게 엮어 가는 稅金特講을 連
載한다.

營業稅의 限界는 어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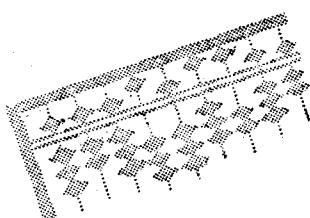
營業稅란 무엇인가?

非課稅와 免除되는 营業이란?



李 文 宰
韓國稅務會計研究會長

第5講 営業稅라는 稅金



營業稅는 営業稅法에 定하는 営業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者에게 去來로 인하여 거두어 들이는 収入
金額에 대하여 課稅하는 稅金이다. 利益의 有無간에
去來로 인하여 収入되는 金額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課稅하기 때문에 収益課稅 또는 外形課稅의 租稅라
고도 한다. 쉽게 말해서 所得稅는 所得이 있어야
課稅하나 営業稅는 장사를 해서 原價와 必要經費
를 빼고 남는것이 있건 없건 간에 總收入金額(売
出額)에 대하여 課稅하기 때문에 가령 売入原價보다
낮은 價額으로 밀치고 팔아도 課稅되는 稅金이
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営業稅는 어찌보면 不
公平課稅가 되기도 하므로 그 稅率만은 다른 租稅
와 달리 千分率로 하는가 하면 納稅者個別의 負擔
能力測定도 할수 없어 業種별로 大別하여 比例稅
率(一定稅率)로 適用하고 있다.

I. 納稅義務者와 課稅의 原則

營業稅는 営業稅法이 定한 20種에 이르는 営業을 하는 者가 納稅할 義務가 있는데 営業者는 個人이나 法人을 不問한다.

課稅期間은 法人에 있어서는 定額에 規定된 事業年度로 하되 그 事業年度가 6個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個月間을 区分하여 課稅期間으로 하며 個人은 所得稅와 마찬가지로 年2期로 区分하여 課稅한다.

그리고 営業稅가 課稅되는 여러가지 業種을 經營하는 경우에는 各營業別로 課稅하며 또 営業場이 여러곳에 있을 경우에는 各營業場마다 課稅한다. 이밖에 남이 하든 営業을 承繼하면 引受한 者가 前營業者의 営業稅를 承繼받어야 하므로 이점에 留意해야 한다.

〈例〉

① 店舗를 両分하여 菓子를 散売하는 한편 茶房을 經營하는 경우라면 営業稅를 小売業과 飲食店業의 두가지 곧 営業別로 課稅한다.

② 東大門市場에 店舗가 있고 南大門市場에도 店舗가 있다면同一人에 대하여 店舗別 곧 営業場別로 課稅한다.

③ 남이 하던 店舗를 11月1日부터 引受하여 営業을 始作하였을 경우에는 第2期分의 営業稅가 7月1日부터 12月31日까지로 하여 課稅한다. 이것을 営業의 承繼課稅라고 하며 이경우에는 이밖에 도 国稅徵收法上 前營業者의 営業稅가 아닌 다른 稅金의 滯納이 있다면 그것까지 第二次納稅義務가 있기 때문에 営業承繼에 있어서는 相互간 이 点을 잘 알아서 가려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II. 所得稅와 免除가 되는 営業

營業稅가 課稅되는 営業을 하여도 法律上 課稅하지 아니하는 것은 国家, 地方自治團體, 商工会議所, 赤十字社등으로一般的으로 該當이 없으나 免除하는 営業은 該當이 많을 것으로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하겠다.

① 政府가 發行하는 印紙, 郵票額의 販賣業과 官報의 發売代行業

② 電氣通信法의 규정에 의하여 架設된 公衆電

話外 私設交換台에 의한 営業

③ 営業場을 特設하지 아니하고 自己가 収獲한 農產物, 林產物과 畜產物을 販賣하거나 직접 이를 原料로 하는 製造業

④ 定期刊行物의 發行과 図書出版의 営業

⑤ 放送業

⑥ 国内 또는 外國에 船籍을 둔 船舶이나 登錄된 航空機의 外國航行의 営業

⑦ 外貨를 獲得하는 輸出, 軍納, 用役 및 觀光營業(保稅加工業, 保稅債加工業, 輸出品債加工業, 輸出品生產業, 駐越南國軍用品外貨販賣業, 國際入札納品業, 國際入札用役業, 國際入札下部給納品業, 國內外貨販賣業 包含)

여기에서 알아 둘것은 이들 業中 ④ ⑤ ⑥ ⑦에 該當하는 것은 申告를 함과 동시에 免除申請을 하여야만 営業稅를 免除한다. 그밖의 것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当然免除營業이라고도 하며 申請을 要件으로 하는 免除을 申請免除營業이라고도 한다.

〈例〉

① 郊外에서 땅을 飼育하는 畜產物을 經營하는 한편 生活도 裁培하고 있는 者가 市內要地에 店舗를 設置하고 여기에서 自己가 収獲한 生花와 봄지나 땅은 販賣하였다는 경우에는 市內에서 販賣場을 特設하여 販賣한 分에 대하여는 営業稅를 課稅한다. 理由는 営業場을 特設하였기 때문이다.

② 農場主人이 農場에서 채소와 家畜을 販賣하고 있다면 営業稅를 課稅하지 아니한다. 理由는 営業場을 特設하여 販賣하지 않기 때문이다.

III. 課稅標準과 稅率

營業稅의 課稅業種은 現行上 20種이라고 하였는데 現在 国會에서 審議中에 있는 改正案에 따르면 11種으로 縮少하기로 하였다. 縮少라고하여 課稅業種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業種끼리 統合시킴으로서 縮少되는 것이다.

다음에 現行의 業種과 그 課稅標準 및 稅率 그리고 改正分을 같이 掲載하기로 한다.

| 現行 | 改正 |
|-------------------------|----------------|
| 保険業(保険料額) 0.36% | 그대로 0.5% |
| 水産業(収入金額) 0.6% | 削除 |
| 鉱産業(") " | 그대로 0.5% |
| 電気ヵス業(") 0.36% 1 | 甲0.5% |
| 製造業 (") 甲 0.36% } 製造業 | 乙1.0% |
| 乙 0.84% } | |
| 都壳業(販売金額) 甲0.36% 1 | 都壳甲0.5% |
| 乙0.84% } | 都壳乙1.0% |
| 小壳業(") 甲 0.6% } | 小壳甲0.75% |
| 乙1.2% } | 小壳乙1.5% |
| 無盡業(収入金額) 0.6% 1 | |
| 信託業(") 0.6% } | 金融業 1.0% |
| 金融業(") 0.84% | |
| 典當舗業(") 1.2% 1 | |
| 軌道業(") 0.6% } | 運送保管業 1.0% |
| 運送保管業(") 0.84% } | |
| 不動産賣壳業(") 0.84% | 不動産業 1.5% |
| 建設業(") 1.2% 1 | 그대로 1.5% |
| 沐浴湯呑理髪美容業 1.2% 1 | 그대로 1.5% |
| 飲食店業(") 1.8% } | 飲食店其他서비스業 2.0% |
| 其他서비스業(") 1.8% } | |
| 料理店業(") 2.4% } | 料理店娛樂서비스業 3.0% |
| 娯楽서비스業(") 2.4% } | |

改正前後로 営業名과 税率이 달라지는 것을 표로서 比較하였다. 特記할 것은 水産業이 課稅營業에서 削除되어 앞으로 所得稅營業으로 된다는 것과 税率이 加重平均하여 19.6%가 引上 되었다는 点, 그리고 不動產賃貸도 不動產売買와 함께 不動產業으로서는 앞으로는 営業稅가 課稅된다는 点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알아 둘 것은 税率에 있어서 製造業의 甲은 電気ヵス業, 脱穀, 精米, 精麦, 肥料, 飼料, 製糸, 緑綿, 製油, 紡織, 織造, 製紙, 袋, 煉炭(마세크炭除外), 人造絹, 船舶, 汽車, 電車, 軌道車의 製造業에 대해서만 適用하여 都小壳業의 甲은 穀物, 소금, 煙草, 麦粉, 肥料, 飼料, 青果物, 切干, 甘藷, 鮮魚 및 煉炭(마세크炭除外)의 販売에 대해서만 適用한다.

IV. 営業鑑札

營業稅가 課稅되는 営業을 始作하면 다음 事項別로 각각 30日内에 所管稅務署長에게 申請하여 営業鑑札의 交付를 받어야 한다.

- ① 新規로 営業을 開始한 때
 - ② 1年以上 営業을 休業한 者가 다시 営業을 계속하게 된 때
 - ③ 営業을 승계한 때
 - ④ 他稅務署区域内에 営業場을 移転한 때
- 그리고 交付을 받은 営業鑑札은 每年 2回 1/12 ~ 1/31과 7/1 ~ 7/31 사이에 稅務署長의 檢閱을 받아야 한다. 이를 中間檢閱이라고도 한다.

이밖에 営業鑑札은 그 内容에 있어서 变경된것이 있으면 訂正申請을 하여 訂正을 받아야 한다. 訂正의 事由는 営業場의 移転, 営業種名, 商号, 営業者의 住居所의 務轉등을 말한다.

만약에 이와같은 営業鑑札을 期限内에 안받았거나 檢閱을 안받는등 違背事實이 있으면 無鑑札加算稅, 無檢閱加算稅등을 行政罰料로서 追徵 当한다.

V. 申告와 納付

營業稅의 申告와 納付는 課稅期間이 끝난后 즉法人은 6個月마다 그마감날로 부터 30日内이고個人은 20日内이다.

所定期限内에 無申告하거나 無納付하면 역시 加算稅가 뒤따른다.

그리고 課稅期間의 途中 3個月이 지난 뒤 前期分의 営業稅額의 50%를 中間予納으로서 納付하여야 하는데 法人은 中間 3個月이 지난뒤 50日内에 하여야 하고 個人은 第1期分을 5月末日까지, 第2期分을 11月末日까지 한다.

勿論 이와같은 中間予納을 한 税額은 定期分 納付稅額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미리 낸다는것 뿐이지 따로 負担하는 것은 아니다.

이밖에 한 課稅期間의 営業稅額이 5百원미만일 때에는 小額不徵收라고 하여 営業稅를 課稅하지 않는데 改正法案에는 倍로 올려 千원으로 되어 있으나 伝聞한바에 의하면 좀더 올린다고하니 두고 볼 일이다.

VI. 帳簿 備置와 記帳

當業稅法에서는 한 課稅期間의 前期分 課稅標準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法人은 모두複式簿記) 각기 該當하는 帳簿를 갖추고 每日의 記錄을 할義務가 있다.

萬一에 이를 안지키면 無記帳加算稅가 불가된다.

① 2千万원(運送保管業과 其他서비스業中 都給代理 仲介 및 物主客主業은 千만원)以上은 複式簿記

② 9百万원 以上(①의 팔호분은 450만원)은 簡易帳簿

③ 9百万원미만은 日記帳

그런데 稅法改正案에는 複式簿記義務는 4千万원以上, 簡易帳簿義務는 2千万원以上, 日記帳義務는 2千万원미만으로 되어있다.

VII. 事例풀이

① 営業稅는 위에서 알아본바와 같이 小額不徵収라고 하는 이른바 免稅點이 한 課稅期間 現行上稅額으로 5百원이고 改正案에는 千원이므로 改正案대로 된다고 하여도 小売商의 경우라면 6個月 동안에 販賣金額이 66,667원以上이면 課稅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営業鑑札도 交付받어야 한다. 이 경우 하루平均은 370원이 되므로 果然 課稅技術上 그와같이 實施할지 疑問視되기도 하나 法上으로는 어디까지나 納稅義務가 있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② 從業員共濟組合에서 利益도 안취하고 實際所要된 原價대로 実費奉仕하는 食堂을 經營하고 있다. 이는 從業員들의 厚生機構이고 営利가 아니므로 営業稅가 課稅되어야 하는지 疑問視될 경우가 많다. 営業稅法視行令第1條에 따르면 営業稅가 課稅되는 営業의 定義는 “營業이라함은 営利를 目的으로 繼續的으로 同種의 行為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경우를 보면 同種의 行為가 繼續的이기는 하나 그前提가 되는 営利를 目的으로 한것이 아니므로 課稅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多少간이라도 利潤이 加算되는 営利性이

있다면 그것은 非課稅로 볼수 없는 것이다.

③ 甲氏는 오래前에 取得하여 오는 土地를 一時에 売買하고 말았다.勿倫 当初 取得은 営利를 目的한것이 아니나 多年간의 地價上昇으로 재미를 보았다고 한다. 한편 이와같은 事情에 있는 乙氏도 역시 近來에 와서 土地를 売却하였는데 乙氏는 여러차례로 나누어 팔았다고 한다. 이 경우 不動產売買業으로 営業稅가 課稅되어야 하는지 疑問스럽기도 한데 甲氏에게는 営業稅가 課稅되지 아니하였으나 乙氏에게 課稅되었다고 한다.

乙氏에게 課稅한 理由는 繼續的으로 同種의 営業을 하였기 때문이다. 곧 営利性의 有無를 制定하는 基準은 客觀的으로 判断했기 때문에 繼續性의 有無 判定의 基準은 課稅期間內에 一回以上이면 繼續의이라 할수 있기 때문이다.

④ 위에서도 말했지만 改正法案에 의하면 不動產의 貨貸도 課稅營業에 追加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不動產의 貨貸에 대하여는 不動產所得稅만 課稅하였으나 앞으로는 営業稅까지 課稅하게 된다.

土地의 貨貸, 建物의 貨貸, 登錄된 自動車나 船舶의 貨貸등이 모두 그것인데 小額不徵収가 改正案에 千원이고 이들 業種의 稅率이 1.5%이므로家庭에서의 房費收入도 6個月에 66,667원이 넘으면 課稅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⑤ 一定한 営業場 즉 店舗같은 것이 없고 떠도는 말하자면 行商은 営業場이 없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기에 営業稅를 안내는것 같아도 法上으로는 이를 営業場이 一定한 場所에 없는 者는 그들의 住所나 居所를 営業場으로 보기 때문에 역시 納稅義務가 있는 것이다.